

에도 후기에서 메이지기에 나타나는 질문표현의 양상

엄 필 교
(동서대학교)

국문초록

일본의 근세 후기 에도어는 현대 동경어와 관련된 각각의 표현형식이 나타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동경어와 에도어 사이에는 형태는 동일하나 용법이 달리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하나로 문말표현을 들 수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문의 문말 형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질문>을 나타내는 문말조사「か」가,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문에 함께 사용되지만 근세전기에는 <설명요구>의 질문문에 붙는 「疑問詞+か」 형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근세후기 에도어에서 명치 30년대까지의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각각의 질문표현의 문말형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각각 에도기·막부말기·명치기로 나누어 출현빈도수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결과 에도기에서 막부말기를 거쳐 명치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문에서 각각 다른 형식의 문말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녀차가 나타났다. 즉, <설명요구>의 질문문에서는 화자가 남성인 경우 『金色夜叉』를 제외하고 「의문사」만으로 질문을 나타내는 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여성은 <의문사+중조사>형식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남녀차가 보이는 현상에 대해 여성은 단정적인 질문 대신에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중조사를 붙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명요구>질문문에서 「疑問詞+「か」の複合形」은 남성 전용어이지만 <판정요구>의 질문문에서는 여성의 사용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은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 <판정요구>의 질문문은 질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문조사「か」가 필요하지만 「か」가 너무 강한 어조로 들려 여성들은 사용하기를 꺼려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문말조사「か」를 복합화시킴으로 부드러움을 더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일본어에서는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조사「の」는, 남녀 구별없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명치초기에서여성의 사용예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종조사「の」는, 의문조사「か」보다 표현의 어감이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여성 쪽에서 리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질문표현의 문말형식(質問表現の文末形式), 설명요구(説明要求), 판정요구(判定要求), 종조사(終助詞, 에도기(江戸期), 막부말기(幕末期), 명치기(明治期), 성차(性差)

1. 들어가기

일본의 에도어는, 동경어와 연관된 각각의 표현 형식이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동경어와 에도어 사이에는 형태는 같아도 용법이 다른 경우가 보이며, 그러한 형식의 하나로 질문표현을 들 수 있다.

현대 일본어에서는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형식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즉, <질문>을 나타내는 의문조사「か」가,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표현의 양쪽 모두에 사용된다. 그러나 에도 전기에는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에 붙는「의문사+か」형식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도 후기에서 막부말기, 그리고 메이지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표현의 형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1) 阪倉篤義(1960)은, <의문사+か>형식이 <설명요구>의 질문문에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로 한다.

분석 자료는 문정기(文政期)의 작품에서 막부말기 그리고 메이지 30년대까지의 작품 가운데서 회화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접화법으로 쓰여진 부분은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에도기의 분석자료>

『浮世風呂』(1809~1812) 滑稽本 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刊 1957년
『春色梅暦』(1832) 人情本 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刊 1962년

<막부말기의 분석자료>

『怪談牡丹灯籠』(1861~1864) 落語 口演速記 三遊亭圓朝集 明治文学全集 1 6
ちくま書房
『KUAIWA HEN』(1873) E.Satou 著 復刻1967 東洋文庫

<메이지기의 분석자료>

『一読三歎当世書生氣質』(明治18~19年) 小説 『坪内逍遙集』明治文学全集 1 6
ちくま書房
『浮雲』(1886~1887) 小説 名著復刻全集近代文学館 新編 二編 春陽堂版 1911년
『金色夜叉』(1900) 小説 名著復刻全集近代文学館 五冊 春陽堂版1911년 ちくま
書房刊

질문표현에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몇 가지 분류법²⁾이 있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대답 방식의 타입에 착목하여 <설명요구>와 <판정요구>의 질문표현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즉, 「いつ着きましたか。」라는 질문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며, 「一人で来たの?」라는 질문은 판정을 요구하는 질문이 될 것이다.

또한 질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의문>이나 <명령> 등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용법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宮地 裕(1951)는 「説明要求」, 「判定要求」의 2분류법으로, 阪倉 篤義(1960)에서는 「説明要求」, 「判定要求」, 「選択要求」의 3분류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果たして私に出来るだろうか。(疑い)
- 早く持って来ないか。(命令)
- こんなことを許していいのか。(反語)
- ぼつぼつ始めましょうか。(勧誘)

II. 에도 후기에 나타나는 질문표현

1. 설명요구의 질문표현

『浮世風呂』와 『梅暦』를 분석하여 에도 후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의 질문표현 형식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사만 있고 종조사가 없는 질문표현」형식이 각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여성은 「의문사+종조사」형식의 질문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표1 설명요구의 질의표현 형식>

각 형식	작품	浮世風呂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의문사+∅		91	43	38	10
의문사+의문조사「か」		6	4	3	4
의문사+의문조사「か」의복합형		1	1	0	7
의문사+종조사		28	34	10	42
의문사+문의 중지형		0	0	0	1
종조사「(とは)エ」		1	4	0	3
부조사「は」		7	4	0	3
계		133	92	51	73

1.1 의문사+∅

- (1) これは何といふものだ。(浮世. 87. 2. 生酔→番頭)
- (2) あぶない。どうお仕だ。(浮世.227.15..おさめ→むす)
- (3) ハイ、どちらからお出なさいました。(梅暦..209..2.お蝶内→儀)

「의문사+지정의 조동사『だ』」(용례(1))의 질문형식은, 화자가 남성인 경우,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는 모두 <대등>또는 <손윗사람→손아랫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났으며 滑稽本 『浮世風呂』에서는 <취객>이 목욕탕의 카운터에게 말을 붙이는 장면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여성의 사용례도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주로 용례(2)와 같이 접두사『お』를 붙인 『お～だ』형을 사용한다. 에도 후기의 특색으로 당시 널리 사용되던 『お～だ』형식은, 가벼운 경의를 나타내며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으로 남성이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고 여성만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의문사+だ』형은 여성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의문사에 정중한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붙은 형(용례3)은 남녀모두 사용례가 있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훨씬 많이 나타났다.

1.2. 의문사+『か』

- (4) 生姜とは何の事でございますか。(浮世.155.11.やす→女房)
- (5) ム、なぜ。何所ぞ約束があるのか。(梅暦.161..12.藤→由)
- (6) おめへのお宅はどちらでございますか。(梅暦..197.11.由→五四郎)
- (7) 一丈も積つてはどうございませうか。(浮世.251.15.番頭→とび八)
- (8) まあどうしてあのやうな声が出るか。(浮世.229.4..おさめ→むす)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사용되던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에 관하여 柳田征司 (1985)는, 『天草版伊層係物語』에 나타나는 의문표현 가운데서 「의문사+ぞ」는 「질문」으로 사용되며 그리고 「의문사+か」는 「의문」으로 쓰인다³⁾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에도 후기의 작품에서는 「의문사+か」가, 「질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가 상당히 보이지만 용례 (8)과 같이 「의문」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보였다.

에도 후기가 되면 이미 「의문」의 용법 보다 「질문」의 용법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표2>에서 짐작할 수 있겠다.

3) 柳田征司, 「疑問表現の変遷—「か」「や」の場合」, 『室町時代の国語』, 1985年, 東京堂.

<표 2 「의문사+か」용법>

용법	「의문사+か」	浮世		梅曆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의문		3	3	1	1
질문		6	4	3	4
계		9	7	4	5

「의문사+か」의 上接語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의문사+「か」의 上接語>

上接語	「의문사+か」	浮世		梅曆	
		남성	여성	남성	여성
体言		1	0	0	0
準体詞		0	0	2	0
否定 助動詞「ない・ねへ」		0	0	0	0
過去 助動詞「た」		0	0	1	1
動詞 終止形		1	1	0	0
形容詞 終止形		0	0	0	0
敬体		4	3	0	3
계		6	4	3	4

(9) おめへのお宅はどちらでございますか。(梅曆197.11.由→男性)

(10) ム、なぜ。何所ぞ約束があるのか。(梅曆161 12 藤→由)

의문조사「か」에 관하여 佐久間鼎(1983)는,

「か」が、詰問的に感じられるため、それぞれ緩和的な手段が講じられ、たとえば「か」の上接する語に「デス・マス・ゴザイマス」などの丁寧辞や、準体助詞「の」を挟んで文末に接続することがある。4)

라고 언급하고 있다.

4) 佐久間 鼎『現代日本語法の研究』くろしお出版 1983 p 77

예문(9)는 敬体 「ゴザイマス」에, 그리고 예문(10)은 準体詞 「の」에 「か」가 각각 붙어 사용하고 있다. 準体詞를 넣어 사용한 예는 『梅暦』에서만 나타났다.

1. 3 의문사+「か」의 복합형

<표 4 의문사+「か」복합형의 종류>

「의문사+「か」복합형 의 종류	浮世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かね・かねへ	0	0	0	2
かへ	0	0	0	5
계	0	0	0	7

(11) 「それともなんぞ廊へ使にでも参るわけかネ

「イ、エそれじやアありませんが、、、 (梅暦.232.15.かげ八→女)

(12) 「何ぞ此節苦勞になさいます事がありますのかへ。(梅暦.127.12.米八→此系)

의문사가 선행하는 문에, 의문조사「か」의 복합형을 사용함으로써, 「か」가 갖는 강한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질문표현은 『梅暦』에서 여성의 사용례만 보였다. 그 밖에, 종조사 「かな」「かのう」의 사용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독백조의 의문의 뜻으로 쓰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1.4 의문사+종조사

<표 5. 의문사+종조사>

의문사+종조사	浮世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エ (へ)	2	16	7	36
ぞい	1	0	0	0
な	2	2	0	0
ね・ねエ	8	5	0	6
の・のふ	4	8	3	0
のよ	0	1	0	0

よ	1	2	0	0
計	18	34	10	42

- (13) いけやかましい。何の事たい。(浮世. 199.4. 中年層の女→下女達)
- (14) お屋敷はどなた様でございます。(浮世. 188.15. 六十ちかきばあさま→そらおかみ)
- (15) マアそりヤアそうと、宅のよふすはどふだの。(梅暦. 50.1. 丹次郎→米八)
- (16) そして誰がおまはんの病気の世話をします。(梅暦..51..2..米八→丹次郎)

의문사에 종조사가 붙은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의 종조사는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용례(14)의 「의문사+고」형식은, 소수이긴 하나 남성이 사용한 예문도 보였지만 화자는 주로 고 연령층의 사람들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한편,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의문사+종조사」형식의 질문표현 가운데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梅暦』에서는 「疑問詞+고」가 「의문사+종조사」형식 전체의 과반 수 이상(52.4%)을 차지하고 있다. 『浮世風呂』에서는 10개의 용례 가운데서 5개가 상류층 상인(町人)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적인 지위의 관계는 90% 이상이 <손아랫사람→손윗사람>이거나, 상류층에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나타나 종조사「고」는, 정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1.5 의문사+문의 증지형

- (17) どうして爰を御存知で。(梅暦.218.2. 母→尼)

이 형식은 『梅暦』에서 한번 나타났다.

1.6 종조사 「{とは}고」

종조사	작품	浮世風呂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とは}고	2	6	0	5

(18) むす「間白とは고」

おさめ「間白とは白絹子に紅絹裏をつけた衣裳さ。(浮世.226.16.むす→さめ)

(19) 主「ナニそれもお浜さんが世話をしてよこしたのだ。」

よね「おはまさんととは고」(梅暦. 53. 5. 米八→丹次郎)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은 의문사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とは」라는 조사에 종조사 「고」를 붙여 「반문」의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식은 남성이 사용한 예문도 있지만 주로 여성에게 많이 보이는 표현이며 시대적으로는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조사 「고」는, 근세후기에 새롭게 나타난 표현이라고 田中健子(1956)는 설명하고 있다.⁵⁾

1.7 부조사「は」

작품	성별	남성	여성
浮世風呂		5	4
梅暦		0	3
계		5	7

(20) たくあん「ハテさて夫は氣の毒千万。トキニ病体は。

いんきょ「兎角食物が納り兼ねまして、食べると尾薨ながら吐きます。

(浮世.65.14.医者→隠居)

5) 田中健子, 「疑問表現形式の史的変遷—会話文を中心として—」, 『季刊文学・語学』1956年, 創刊号.

(21) コウコウ、おめへゆふべは大酒屋か。

ア、おめへは(浮世. 114.11.さみ→ばち)

「ハイ御酒は

「イエ、お飯へ。それともお長おめへのむか (梅暦84.12.お長→丹次郎)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은 의문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의 예문은 부조사「は」가 인토테이션만을 동반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말을 높이면 <판정요구>의 질문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사「は」가, <설명요구>의 질문문으로 밖에 쓰이지 않는 것은 요컨대 조사「は」가 갖는 원래의 <대비>용법이 설명요구의 질문문으로喚起된 것으로 생각된다.

2.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에도 후기에 나타나는 <판정요구>의 질문표현은, 화자가 남성인 경우, 의문조사「か」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여성은 의문조사「か」의 복합형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梅暦』에서는 의문조사「か」보다 두 배나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표6>에서 볼 수 있다.

<표6 판정요구의 질의표현 형식>

판정요구의 질의표현 형식	浮世風呂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의문조사「か」	125	73	24	25
의문조사「か」복합형	33	44	7	51
중조사「の」	0	0	0	1
계	158	117	31	77

2. 1 의문조사「か」

(22) おまへもお仕か。(浮世.187.1.丸→角)

(23) 早く帰つてお節の支度をせにやアならねへ。おめへん所はみその雜煮か。

(浮世. 198. 3. さる→べか)

(24) 米八さんをお案じて此御屋敷へも一所においでか。(梅暦. 143. 3. お長→丹次郎)

용례(23)와 같이 체언에 下接하는 「か」는, 남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남성에게 많이 나타났다. 다른 작품에 비해 『浮世風呂』에서, 특히 여성에게 이러한 형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가 허물없이 주고받는 동성끼리의 장면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상류층의 상인 여성들이 사용한 예문은 보이지 않고 화류계 여성이나 하녀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ご覧・お出で」에 下接하는 「か」(용례24)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는 여성들에 한 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례(22)와 같이, 「お+動詞の連用形」에 접속하는 「か」는 남성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여성들에게서만 나타났다.

<표7>은, 의문조사 「か」의 上接하는 단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7 의문조사 「か」의 上接語>

의문조사「か」의 上接語	浮世風呂		梅暦	
	성성	여성	남성	여성
体言・準体詞	56	29	14	1
形容動詞の語幹	2	0	0	0
お出で・ご覧	0	3	0	3
お+連用形	0	6	0	2
副詞	1	2	1	0
助詞「と」	0	1	0	0
助詞「に」	0	0	1	0
丁寧辭「ございます・ます」	13	10	3	13
丁寧辭「やせう」	0	0	1	0
丁寧辭「おざんせん」	0	0	0	1
丁寧辭「ざます」	0	0	0	1
丁寧辭「有いせん」	0	0	0	1
丁寧辭「なんす」	0	0	0	1
動詞 終止形	12	5	2	1
形容詞 終止形	5	1	1	0

過去 助動詞「た」	13	11	0	0
否定 助動詞「ない・ねえ・ん・ぬ・ず」	20	5	0	1
否定意志助動詞「まい・めへ」	1	0	1	0
断定助動詞「だ」	2	0	0	0
계	125	73	24	25

현대 일본어에서 의문조사 「か」는 일반적으로 敬体 「デス・マス」에 붙여 사용하지만, 에도 후기의 작품에서는 常体에 붙어 사용하는 비율이 『浮世風呂』와 『梅暦』에서 남성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梅暦』에서 여성의 사용률은 32%에 그치고 있어, 敬体에 붙는 「か」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8> 참조)

<표8 .敬体에 붙는「か」>

敬体에 붙는 「か」	浮世風呂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敬体	10.4%	13.7	16.7	68.0
常体	89.6	86.3	89.3	32.0

2. 2 의문조사「か」의 복합형

<표9 의문조사「か」의 복합형>

「か」의 복합형의 종류	浮世風呂		梅暦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かい	7	0	0	0
かいの	1	0	0	0
かえ	9	29	6	42
かな	6	3	0	0
かね・かねえ	7	10	1	9
かの	3	1	0	0
かよ	0	1	0	0
계	33	44	7	51

- (25) 「ヲ、勝んべいおぢい。売れるかい。(浮世.279.1.魚売り→青売り)
- (26) 又かいの、コリヤ、あやしいはい。(浮世.98.7.盲人二人)
- (27) ソシテあなたが左遷の間は、御新造さんどうなさいました。お宿にか
エ。お里にかエ。
(浮世.265.2.鼓八→衰微)
- (28) ヲヤへ、お鍋さんでございますかへ。(浮世.127.15.いぬ→きち)
- (29) 乞喰染た丹次郎につながつて居りやア、根生までゆすりかたりも稽古の
ためかへ。
(梅暦.106.2.藤→米八)
- (30) 相かはらず碁でござらう。伊勢十の主人、油八の太郎兵衛なる者、お
のへ御出会かナ。
(浮世.65.11..医者→隠居)
- (31) ドレ、おいらも這入らう。ヲヤへオお泥さん。おめへまだ這入て居るか
な。(下層の女性同士)
- (32) ハイ、チト御免なさいまし。陰八さんのお宅はごちらでございますかネ。
(梅暦. 235.6. 善孝→此系)
- (33) 衰微「最う一世一代といかねへかの。」
鼓八「イエ、どうも、まだむづかしう。」(浮世. 267. 11. 衰微→鼓八)

<관정요구>의 질문표현에 나타나는 「か」의 복합형은 『浮世風呂』에서는 종
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조사
「かい・かいの」가 붙는 질문문은 『浮世風呂』에서만 나타났으며 『梅暦』에는
사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골계본(滑稽本)과 인정본(人情本)
의 위상적인 성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かい・
かいの」를 사용하는 화자는 대부분 하류층 상인들이며 또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대부분 서로 허물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종조사「かエ」를 절반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종조사「かい」와는 대조적
으로 敬体「ございます」에 下接하는 용례가 많고 또한 상류층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들이 눈에 띈다.

2. 3 종조사 「の」

(34) お蝶『そんなら爰が金沢の

くも『サアその金沢へはまだ一里、金沢よりか金になる、(梅暦69 9..お蝶→くま)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조사『の』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남성도 사용하지만,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다.

의문사를 동반하지 않는 <관정요구>의 질문표현의 종조사『の』는 『浄世風呂』에서는 사용례가 보이지 않고 人情本인 『梅暦』에서 여성이 사용한 예문이 한번 나타났다. 화자는 젊은 여성인 <お蝶>이다.

III. 막부말기에 나타나는 질문표현

1. 설명요구의 질문표현

막부말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의 질문문의 형식은 <표10>과 같다.

『会话篇』에서는 『의문사만 있고 종조사가 없는 문』의 형식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牡丹灯籠』의 경우, 남성이 사용한 예문이 눈에 띄지만 여성은 그 밖에 『의문사+종조사』형식도 즐겨 사용하였던 것 같다.

<표10 설명요구의 질문문의 형식>

설명요구 질문문의 형식	会话篇	牡丹灯籠	
		남성	여성
의문사+∅	94	65	10
의문사+의문조사「か」	25	22	2
의문사+의문조사「か」의 복합형	0	2	0
의문사+종조사	4	28	17
의문사+문의 중지형	0	8	1
부조사「は」	7	3	0
계	130	128	30

1. 1 의문사만 있고 종조사가 없는 문

- (35) korekara sakino michi wa dô da.(會話.42.12)
- (36) Tokini tsuya wa itsu akeru de gozaimashô.(會話篇.134.52)
- (37)何処からどうお帰りだ。(牡丹.30.上.10.お国→孝助)
- (38)いつ頃御帰宅になるのでございますのでせう。(牡丹52上12お徳→父親)

『會話篇』에서는 「의문사+敬体」형이 (용례36) 절반 정도 나타났으며 『牡丹灯籠』에서도 남성의 30% 정도가, 그리고 여성은 70%가 「敬体」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자는 대부분 중년층의 여성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또한 용례(37) 과 같이 『牡丹灯籠』에서 여성에 한하여 「お~だ」형이 보였다.

에도 후기와 마찬가지로 「의문사+だ」형식은 여성이 사용한 예문은 보이지 않는다.

1. 2 의문사+「か」

막부말기에 나타난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에서는 의문사에 의문조사「か」를 수반하는 형식은 「질문」용법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상당히 볼 수 있었다. 「疑問詞+か」의 上接語를 정리한 것이 <表11>이다.

<표11 의문사+「か」上接語>

疑問詞+「か」 上接語	會話篇	牡丹灯籠	
		남성	여성
敬体「ます」	9	8	2
敬体「です」	2	2	0
準体詞「の」	0	2	0
体言	3	1	0
動詞終止形	5	2	0
過去助動詞「た」	3	7	0
断定助動詞「だ」	2	0	0
否定助動詞「ん」	1	0	0
계	25	22	2

- (39) kawasaki madé iku ri arimashô ka.(會話..42.2)
- (40) Dô shite niwaka ni kô des' ka.(會話.124.41)
- (41) 何処へかお使に参りますのですか。(牡丹..22.下.17.孝助→主人)
- (42) どなた様でございますか。(牡丹.62上.27.相川→見知らぬ男性)
- (43) テモ大概いつ頃お歸りになりませうか。(牡丹..52.上.16.徳→父親)
- (44) シテ汝は今まで何方へか奉公をした事が有るか。(牡丹..11..上..18..主人→孝助)

막부말기에 나타나는 의문조사 「か」의 上接語 가운데 敬体에 접속하는 「か」의 사용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牡丹灯籠』에서는 화자가 여성인 경우 2번 보이지만 모두 敬体에 붙어 나타났다.

1. 3 의문사+「か」의 복합형

- (45)困ったネ、暗くなったが何があるかへ。(牡丹.30.上.1.相川→孝助)

의문사가 선행하는 문에 「か」의 복합형이 붙은 질문문으로, 에도 전기에 보이던 「カネ・カナ・かへ・かねへ」와 같은 종조사는 대부분 모습을 감추고 그중 「かへ」만이 『牡丹灯籠』에서 2번 나타났다. 화자는 <孝助>의 장인인 <相川>이다.

1. 4 의문사+종조사

<表 12 의문사+종조사의 종류>

의문사+종조사의 종류	會話篇	牡丹灯籠	
		남성	여성
エ	3	11	9
さ	0	0	1
な	0	7	0
ね・ねえ	0	4	3
の	0	5	2
よ	0	1	2
계	3	28	17

- (46) Dono kurai nara, danna, yoroshii gozaimasu, é.(會話.88.47)
- (47) さうして彼様處で何が釣れますへ。(牡丹.13.上.21.半蔵→新三郎)
- (48) 御亭主や、此品は幾許値するナ(牡丹.6.上.9.侍→亭主)
- (49) 旦那、どこへ往ノ。(牡丹.56.下.10.峯→半蔵)
- (50) 殿様雛同士とは情けない。何んで私は雛同士で御ざいますの。
(牡丹.43.下.20.孝助→主人)
- (51) 何を突き飛すのだネ(牡丹.37.上.8.孝助→源助)
- (52) それハ何月何日の事だノ。(牡丹.12.上.8.半蔵→新三郎)
- (53) どうなつて居るのだヨ。(牡丹.47.下.19.峯→半蔵)
- (54) 其方の叔父は何商売ぢゃノ。(牡丹.11.下.16.主人→孝助)

막부말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의 질문문에서 사용하는 종조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용례(46) (47))과 같이, 「의문사+고」형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敬体에 붙는 「の」(用例50)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여성들만 사용하지만 막부말기에는 남성이 사용한 예문도 나타나 흥미롭다. 피고용인 <孝助>가 주인<飯島>에게 대하는 장면에서 나타났다. 지정의 조동사「だ」에 「の」가 붙은 「だの」(예문 53)형은 현대 일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 5 의문사+문의 중지형

- (55)そして那處へ釣に入来お積で。(牡丹.13上.19.半蔵→新三郎)
- (56)何か御用で。(牡丹.59.上.7.婆→相川)

에도 후기에는 여성이 이 형식을 사용한 예문이 한번 나타났지만 막부말기의 『牡丹灯籠』에서는 남성이 사용한 용례가 눈에 띈다.

1.6 부조사「は」

- (57)Sokodé o nimotsu no tokoro wa.(會話.8.24)

2.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표13 판정요구의 질문표현형식>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형식	會話篇	牡丹灯籠	
		남성	여성
의문조사「か」	89	75	11
의문조사「か」의 복합형	5	32	13
종조사「の」	0	0	1
기타	6	0	0
계	100	107	25

2. 1 의문조사「か」

(58) Sugu ni katté mairimashô ka. (會話.4.3)

(59) 其者に逢わないで死にます事でご座いませうか。 (牡丹.70.下.22.女→白石)

(60) Go zonji ga arimasen' no des' ka. (會話.110.37)

(61) O idé nasaru ka. (會話..22.1)

(62) 誰だ、お国さんか。 (牡丹.49.下.26.源→お国)

의문조사 「か」형식의 질문문은 『牡丹灯籠』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례(62)과 같이, 체언에 下接하는 「か」는, 여성이 사용한 예문도 1번 있었지만, 주로 남성들이 사용하며 여성은 대신에 정중한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붙어 사용하는 예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表14 의문조사 「か」의 上接語>

上接語	의문조사「か」	會話篇	牡丹灯籠	
			남성	여성
ございます・ます体		57	25	10
です体		5	1	0
体言		3	8	1
準体詞「の」		4	8	0
動詞の終止形		4	6	
形容詞の終止形		0	2	
否定の助動詞「ない・ん・ぬ・ず」		5	9	0

過去の助動詞「た」	8	11	0
否定意志「まい」	0	5	0
その他	2	0	0
계	89	75	11

2. 2 의문조사「か」의 복합형

<表15「か」의 복합형의 종류>

「か」의 복합형의 종류	會話篇	牡丹灯籠	
		남성	여성
かい	0	2	1
かえ	3	26	12
かな・かなア	2	2	0
かね・かねへ	0	1	0
かのう	0	1	0
계	5	32	13

- (63)湯氣ハ立たかい。(牡丹.53上.4.相川→婆)
- (64)kakarimashô ka na.(會話.136.11)
- (65)Yu ga waité iru ka é.(會話.112.10)
- (66)横川と云ふのは彼の中川へ出る所ですかへ。(牡丹.13.上.21.半蔵→新三郎)
- (67)四月の二日からかねへ。(牡丹.55.上.5.久蔵→峯)
- (68)そうならバー緒に釣に出掛様かノウ。(牡丹.13.上.17.新三郎→半蔵)

2. 3 종조사「の」

- (69)そんなら五年も十年も御帰り遊ばさないの。(牡丹.52.上.18.徳→相川)

종조사「の」는 『牡丹灯籠』에서 딸 <徳>이 부친<相川>에게 질문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カ・カイ」대신 「の」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2. 4 「인토네이션」에 의한 질문표현

(70)なんですね。厭です。それでは独で頂戴致します。(牡丹.9.下.5.志文→秋原)

IV 메이지기에 나타나는 질문표현

1. 설명요구의 질문표현

메이지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은 <표16> 과 같은 형식을 볼 수 있다. <표16>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사만 있고 종조사가 없는 문」의 형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여성은 「의문사+종조사」형식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메이지기에 나타나는 설명요구의 질문표현 형식>

	当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의문사+∅	98	11	39	33	65	31
의문사+「か」	33	4	2	3	67	15
의문사+「か」복합형	10	0	0	0	26	0
의문사+종조사	24	26	0	25	21	31
의문사+문의 중지형	2	1	2	2	1	6
부조사「は」	11	9	6	3	9	3
계	178	51	49	66	189	88

1. 1 의문사만 있고 종조사가 없는 문

(71)君は今朝から何処を漂泊して歩いていたので。(当世.85上.12.書生同士)

(72)御酒はどういたませう。(当世128上.6.女中→男)

(75)全体今日は何方へ。(浮雲.78.3.文三→お勢)

(73)何と言ってお上げだ。(浮雲.89.1.お勢→文三)

(74)君は奈何して、此方を識つて居るのだ。(金色.78.5.貫一→荒尾)

(75)而して阿父さんは何と言つて居ました。(金色.後編.73.母親→息子)

1.2 의문사+「か」

<表17 疑問詞+「か」の上接語>

疑問詞+「か」の上接語	<small>俗世書生氣質</small>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ます (ました・ません)	2	2	0	0	10	6
です	4	0	2	3	44	9
体言	1	0	0	0	1	0
準体詞	1	0	0	0	9	0
疑問詞	0	0	0	0	1	0
動詞の終止形	11	0	0	0	1	0
過去の助動詞「た」	8	1	0	0	1	0
断定の助動詞「だ・じゃ」	4	0	0	0	0	0
否定の助動詞	1	0	0	0	0	0
勧誘の助動詞「う・よう」	1	1	0	0	0	0
계	33	4	2	3	67	15

(76) 客が有ると云ふのに如何するか。(金色続127.6貫一宮)

(77) 何で世話を焼くもんですか。(浮雲.初編.112.6.お政→文三)

(78) はあ、如何いふ御話ですか。(金色.前.66.9.隆三→貫一)

의문조사「か」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강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マス・デス・ゴザイマス」등과 같은 敬体에 접속시켜 사용(예문 77.78)함으로써 상대방을 힐문하는 듯한 어조를 약하고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 혹은 준체사「の」를 넣어 (용례76) 사용함으로써 질책의 뜻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敬体에 붙는 「疑問詞+か」형식은 에도 후기에서 막부말기를 거쳐 지나오면서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단순히 敬体 表現 자체가 증가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로마치室町시대에 「의문」표현으로 쓰이던 「의문사+か」형의 의문조사「か」가 敬体에 下接하여 「질문」表現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表18 敬体에 붙는 「か」의 사용률>

敬体에 붙는「か」의 사용률	浮世風呂		梅暦		会话篇	牡丹灯籠		俗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66.6	75.0	0	75.0	44.0	45.4	100	18.2	50.0	100	100	80.6	100

1.3 疑問詞+「か」의 복합형

<表19 疑問詞+「か」의 복합형>

疑問詞+「か」의 복합형	尙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かい	1	0	0	0	6	0
かな・かなア	4	0	0	0	3	0
かね	4	0	0	0	16	0
かのう	1	0	0	0	1	0
계	10	0	0	0	26	0

(79)誰かお客があるかい。(尙世149下11友芳)

(80)何ぞ用かな。(金色後126.10 鱒淵老女)

(81)それは君の今の身の上だが、如何したのかね。(金色統77.2貫一荒尾)

「かい」를 上接語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표19>에서 알 수 있듯이 敬体에 붙는 「かい」의 사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敬体에 「かい」가 호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종조사 「い」의 성질, 즉 품격이 떨어지는 느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남성이 사용하는 종조사이며 여성이 사용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1.4 의문사+종조사

<表20 의문사+종조사의 종류>

의문사+종조사 의 種類	尙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い	1	0	0	0	4	0
エ(へ)	0	17	0	13	0	4
ッけ	1	0	0	1	0	0
ぞ	1	0	0	0	0	0
な・なア	2	0	0	0	7	4
ね・ねへ	19	2	0	3	4	4
の	0	6	0	7	3	10

のさ	0	0	0	0	2	1
のね	0	0	0	0	0	1
のよ・のよう	0	0	0	0	0	5
よ	0	1	0	1	1	2
계	24	26	0	25	21	31

- (82)だれじゃい。(当世.113..上..26..書生同士)
- (83)如何お為だえ。(金色.前.121..4.母親→宮)
- (84)貴方は何処へ行くのよ。(金色.前.160.7.宮→貫一)
- (85)宮さん、お前さん如何したの。(金色.前.62.8.貫一→宮)
- (86)貴方何を考へて居るのね。(金色.続統..533.お静一扶山)
- (87)貴方は何処へ行くのよ。(金色..前.160.7.宮→貫一)

메이지기에 나타나는『의문사+종조사』형식의 질문문에 나타나는 종조사의 종류는 에도후기와·막부말기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용례(82)처럼 「疑問詞+い」형식은 막부말기까지는 용례가 보이지 않지만 메이지기에 들어오면서 용례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성이 사용한 에도 한번 보였지만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몹시 격노하여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장면에서 나타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례(83)과 같은 「의문사+え」형식은, 막부 말기까지는 남성이 사용한 용례가 11번이나 나타났지만 메이지기의 작품에서는 남성이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전 작품에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い」는 종조사「え」의 변형으로 동경에서는 일찍이「え」가「い」로 변화한 형이며⁶⁾ 종조사「い」를 메이지 20년대 무렵부터 남성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은「い」대신에 종조사「の」나「のよ」형을 사용함으로써 남녀차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한편 『金色夜叉』에서는 「疑問詞+え」형식보다 「疑問詞+の」나 「疑問詞+のよ」형식이 더 많이 나타났다. 「のよ」는, 메이지 20년대부터 여학생들 사이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으로 『金色夜叉』에서는 5번 나타났으며 화자는 젊은

6) 松村 明編, 『古典語現代語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1969年.

여성 <お宮>이다.

1. 5 의문사+문의 중지형

- (88) それはまた如何した理由で。(浮雲.150.1.お勢→本田)
- (89) 幾日ほど逗留のお心算で?(金色.前.75.3.貫一→宮)
- (90) あゝ吃驚した。何時御帰んなすって。(金色.前.62.宮→貫一)

메이지 20년대의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テヨ・ダワ・ノヨ」 등의 표현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石川偵紀는、메이지 21년 巖谷小波의 소설『五月鯉』에서 「テヨ」가 사용된 용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⁷⁾

(中略) 「テヨ」は早くは主として親しい間柄の少女や女学生たちが使い、次第に若い女性の中に広まってゆき、若い女性が男性に対して話すのにも自由に使われていたのである。

"アラもう御帰り遊ばすノ…まだいいじゃありません乎、家外ハまだ暑くつてよ。

(十四の娘→その友の姉)

의문사와 함께 사용하여 문의 도중에서 「질문」을 표하는 이러한 형식은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메이지기의 작품에서 폭넓게 나타났다.

1. 6 부조사 「は」

<表21 부조사 「は」 사용수>

부조사「は」使用数	当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とは	5	1	1	0	1	3
は	6	8	5	3	8	0
계	11	9	6	3	9	3

7) 石川偵紀, 『近代女性語の語尾—『てよ・だわ・のよ』』, 『解釈』, 1972年.

- (91) シテおとつさんの夢といふのは。(尙世.139.上.16.書生同士)
- (92) ハ、アやられたとは。(尙世.157.下.5.書生同士)

에도기에 사용되던 조사「とは」에 下接한 「とはエ」 형식은 막부말기부터 모습을 감추고 그 대신 메이지기가 되면서 종조사「エ」가 탈락한 「とは」형이 메이지기의 전 작품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2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표22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형식>

판정요구의 질문표현 형식	尙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의문조사「か」	106	23	46	24	126	63
의문조사「か」의 복합형	11	6	7	13	61	10
종조사「の」	0	6	1	10	1	8
문의 종지형	0	1	0	1	4	7
「인토네이션」에 의한 질문문	2	0	6	7	44	16
계	119	36	60	55	236	104

2. 1 의문조사「か」

<표23 의문조사「か」의 上接語>

疑問助詞「か」上接語	尙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ございます・ます体	9	15	6	18	22	45
ませう	0	0	0	0	2	5
です体	4	4	7	2	40	13
でせう	0	0	0	0	1	0
体言	24	2	4	1	6	0
準体詞「の」	20	1	4	1	15	0
動詞の終止形	11	0	3	0	10	0
形容詞の終止形	5	0	0	0	4	0
否定の助動詞「ず・ん・ない」	24	0	14	1	17	0
過去の助動詞	9	0	8	1	6	0
否定の意志・推量	0	1	0	0	0	0

助詞「から」	0	0	0	0	1	0
기타	0	0	0	0	2	0
계	106	23	46	24	126	63

- (92) 君はまだ知らんか。(当世.66.上.9.須山宮)
 (93) もしや荒尾さんでは被在いませんか。(金色統11.11婦人酒客)
 (94) 今は真人間ではないと謂ふ訳ですか。(金色後162、5直道貫一)

2.2 의문조사 「か」의 복합형

<표 24 「か」의 복합형 >

「か」의 복합형	当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かい	2	0	0	4	41	5
かエ (かへ)	0	6	0	9	0	1
かな・かなア	0	0	0	0	10	0
かね・かねえ	9	0	7	0	8	3
かの・かのう	0	0	0	0	2	0
かよ	0	0	0	0	0	1
계	11	6	7	13	61	10

- (95) 本当に待つて居てくれたのかい、宮さん。(金色上52.5.貫一→宮)
 (96) お前お供をお為かい。(金色上.119.10.母→宮)
 (97) それじゃアおまへハ。連れの人たちにはぐれたのかへ。(当世.776.下.11.お常→女兒)
 (98) 本当に未だ那樣様子はないのかえ。(金色.後.60.1.宮の母→宮)
 (99) 君は其を以つて大いに慰められはせんかな。(金色.統.67.10.荒尾→貫一)
 (100) 尚門限は大丈夫かネエ。(当世.64.上.13.宮→須山)
 (101) 赤檉さんは那言うて居らるゝが、然うかの。(金色後94.11直行→貫一)

이 시기에 새롭게 나타난 질문표현의 형식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다. 또한 메이지기에 들어 오면서 점차 소멸되던 「かご」, 「ご」, 「お+動詞連用形+か」와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하는 인물은 『浮雲』에서는 <お勢>의 모친 <お政>이다.

「かな·かなア」는 『少世書生氣質』에서 남성이 사용한 용례가 8번 있었는데 대부분 감동이나 회상 혹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かの·かのウ」도 남성의 사용례가 보였는데 상대방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2. 3 문의 중지형

(102) 吉さんがおいでなすったて? (尙世.133下.3.秀→お常)

「て」로 문을 중지하여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식은 남녀 모두 젊은 연령층에서만 나타났다. 『少世書生氣質』와 『浮雲』에서는 여성들만 사용하지만 『金色夜叉』에서는 남성의 사용례도 있었지만 여성은 무려 7번이나 나타났다.

2. 4 終助詞「の」

(103) 那の間貫一を御承知の? (金色 統124婦人→荒尾)

(104) ヲヤ、お、客さんがあるの (尙世 92下16女→書生)

(105) 最うお読みなすつたの (浮雲.131.5.文三→お勢)

현대 일본어에서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조사「の」는 남성들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佐久間鼎(1983)는 종조사「の」와 「て」그리고 「こ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⁸⁾

特に婦人の言葉遣いに普通に用いられているのですが、これ

8)佐久間 鼎 全掲書P.103~105

らはいづれも「か」がついた発問が概して詰問的な態度として受け取られる傾向があるので、それをずっと緩和するといふ心もちから出たものと思われます。

이 형식의 질문문은 『浮雲』에서는 딸〈お勢〉와 〈文三〉과 같이,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표 25 종조사 「の」사용수 >

종조사「の」사용수	当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	6	1	9	1	7

2. 5 「인토네이션」에 의한 질문표현

- (106) 文さん貴方はアノ一課長さんの令妹を御存知 (浮雲..二編..54..6..お勢→文三)
 (107) 婿に不足は無い? (金色.前146.4貫一→宮)

의문조사「か」를 사용하지 않고 인토네이션으로 질문의 뜻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메이지기에 들어오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 「인토네이션」에 의한 질문표현의 사용수>

「인토네이션」에 의한 질문표현의 사용수	当世書生氣質		浮雲		金色夜叉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0	5	7	8	5

V. 맺음말

이상으로, 일본의 에도 후기에서 메이지기에 나타나는 질문표현의 양상을 살

펴보았다.

<설명요구>와 <관정요구>의 질문표현에서 각기 다른 형식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녀차를 볼 수 있었다. 즉,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에서는, 화자가 남성인 경우에 『金色夜叉』를 제외하고는 「의문사만 있고 의문조사가 없는 문」의 형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은 「의문사+종조사」형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용에서 남녀차를 볼 수 있는 원인으로, 여성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를 꺼려하여 그 대신에 다른 종조사를 첨가하여 사용함으로써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근세후기에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던 「疑問詞+か」형식은,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막부말기 무렵부터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해 특히 『會話篇』에서는 이 형식을 19%나 사용하고 있었다. 『會話篇』은 당시 일본어 교과서로서 규범성이 강한 문헌으로 그 시대의 규범적 언어형식으로는 <설명요구>의 질문표현에 의문조사 「か」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관정요구>의 질문표현에서는, 남성은 「~か」형식의 질문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 여성은 막부말기까지는 「かの 복합형」이, 그리고 메이지기에 들어오면서 종조사 「の」와 문의 중지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메이지기의 작품에서, <설명요구>의 질문표현 가운데 「의문사+か」의 복합형은 오직 남성들에게서만 나타났으나 <관정요구>의 질문표현에서는 여성들의 사용례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 <관정요구>의 질문문에서 질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문조사가 필요하겠지만 「か」가 갖는 강압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의문조사 「か」에 다른 종조사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부드러움을 나타내어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의 종조사 「の」는, 현대 일본어에서는 여성 뿐 만 아니라 남성들도 사용하지만, <설명요구>와 <관정요구>의 질문표현에서 메이지 초기부터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종조사 「の」는 의문조사 「か」보다 표현의 여감이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여성 쪽에서 리드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石川禎紀, 「近代女性語の語尾—『てよ・だわ・のよ』」, 『解釈』 1972. 9.
阪倉篤義, 『国語と国文学』, 1960.
_____, 「上代の疑問表現から」, 『国語国文』, 1958. 10.
佐久間 鼎, 『現代日本語法の研究』, くろしお出版, 1983.
田中健子, 「疑問表現形の史的変遷—会話文を中心として—」, 『季刊文学・語学』,
1956 創刊号.
松村 明編, 『古典語現代語助詞助動詞詳説』, 学灯社, 1969.
宮地 裕, 「疑問表現をめぐって」, 『国語・国文』 二十六卷 九号, 1951.
安田 章, 「疑問表現の変遷」, 『国語史への道』上, 1981, 三省堂」.

❖ ABSTRACT

The Aspects of Question Expressions from Later Edo Period through Meiji Period

Um Phil Kyo

In question expressi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sentence-ending-pattern for requesting explanation and yes/no question in modern Japanese language. In other words, the sentence-ending auxiliary word, <か> is used along with requesting explanation and requesting yes-no question. However, WH-question <か> along with the question of requesting explanation is not frequently used before the earlier modern period.

This paper examined the aspects of various question expressions in the document from later Ado Period through Meiji Period.

As a result, I found that gender differences are prominent in different patterns for requesting explanation questions and yes/no requesting questions from later Ado period through Meiji period. Most female use auxiliary words in order to make expressions soft and gentle, in place of assertive questions.

In modern Japanese the auxiliary word, <の> is used irrespective of sexuality. However this study focuses the increasing tendency in female using in earlier Meiji period My conclusion is that most female starts to use <の> because the auxiliary word <の> is heard more soft than the question auxiliary word, <か>.

Key Words

Question Expression Pattern in sentence-ending-pattern, WH-questions, Requesting explanation questions, Yes/No Questions, Ado period, sentence-ending-auxiliary words, Later period in Mac-Boo, Meiji Period, Age difference, Gender difference

논문접수일: 2008. 4. 30.

심사완료일: 2008. 5. 31.

게재확정일: 2008. 6. 13.